

# 북한개발소식

# 09

2019 September

통권 167호

| 이달의 주제 |

대북제재와 북한 경제



월간

# 북한개발소식

2019 September

## CONTENTS

이달의 주제 :

대북제재와 북한 경제



01

권두칼럼  
대북제재와 북한 경제



08

칼럼 1· 오일환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동향과 전망

15

칼럼 2· 정은찬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동향



21

칼럼 3· 안찬일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동향



27

탈북민 수기· 마리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6)



30

북한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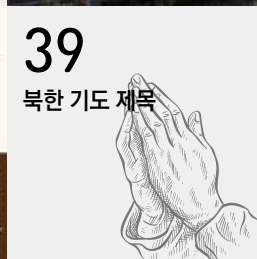
37

서평  
북한선교개론



39

북한 기도 제록





# 대북제재와 북한 경제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대북 경제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약 2여년의 기간이 흘렀다. 올해 초 있었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이 대북 제재 해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모습을 볼 때 대북제재는 분명 북한과 북한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대북 제재가 정확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고 북한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가설과 추측의 영역이다.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운 북한의 특성 때문이다. 대북 제재 문제가 북미 회담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현 시점에서 제재의 효과 및

북한 경제의 상황 파악의 어려움은 이후의 정책 결정과 우리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제 문제는 식량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특성상 외부에서 일정량 이상의 식량을 구매해야만 하는데,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 시장이 침체되고 식량 수급도 차질이 생긴다. 게다가 올해 북한의 식량 작황은 매우 좋지 않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모내기 철에 닥친 심각한 가뭄으로 황해도를 비롯한 북한의 주요 식량 생산 지역에서 제대로 된 모내기



〈문재인 대통령이 올 5월 1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데이비드 비슬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가 이루어지지 못해 식량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세계식량기구(WFP)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10년 만에 최악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비롯한 소외 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WFP 추산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 상황과 관련, 식량 생산량이 급감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최소 2억 7천500만 달러 상당의 식량 30만t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요청에 대한민국 정부는 6월 19일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대북 쌀 지원은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었다.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가 남한 정부의 대북지원 계획에 대해 “시시껄렁한 인도주의 지원 좀 한다고 일이 제대로 풀릴 수 있겠는가”라는 반응을 보였다.<sup>1</sup> 북한 당국이 남한의 대북 지원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진짜 북한 정권이 바라는 미국을 움직이는 일에는 진척 없이 이러한 인도적 지원으로 생색을 내려 한다는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경제 상황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연구 결과로는 식량 생산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그간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통해 외부에서 충분히 식량을 조달해 온 북한의 그간 상황을 생각해볼 때 지금의 식량 부족 역시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시장에서 쌀값이 안정되어 있고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이 이러한 의문의 근거가 되고 있다.<sup>2</sup> 상식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는 만큼 쌀의 시장 가격 하락은 식량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 경제가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른 형태인 만큼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해석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한적이지만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추정해 보고, 최근의 식량 문제 등을 포함한 북한 경제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대응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 비상식적인 북한 경제

현재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수출 제한을 통한 외화 획득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이 지하자원 및 섬유제품 수출, 그리고 해외 노동자 파견 등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는 부분을 규제함으로써 북한이 외화를 통해 각종 무기 수입 및 개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넣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무역의 90% 이상이 대중국 무역인 만큼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1 “대북 인도적 지원 밝힌 정부에 “시시껄렁하다” 반응한 北”, 중앙일보, 2019.05.26, <<https://news.joins.com/article/23479793>>

2 南은 지원하려는데... 정작 北 쌀값은 급락, 조선일보, 2019.05.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5/2019051500235.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5/2019051500235.html)>

위해서는 대중국 무역 규모의 변화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대중무역액은 24.6억 달러로 2017년 49.8억 달러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했으며, 특히 북한의 대중수출액은 2017년 16.5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2.2억달러로 약 87%가 감소했다.<sup>3</sup> 이전 주요 수출품이었던 무연탄은 전혀 수출되지 않았고 철광석, 의류, 수산물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국 해관의 통계를 벗어나는 밀수 등을 통한 교역도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수출 및 외화 획득이 상당히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일견 큰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정확하게는 이러한 무역 침체로 인해 생산활동이 저조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2018년의 북한의 식량사정은 예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시장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경제가 제재를 잘 이겨내고 버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제재의 악영향으로 인해 침체국면에 접어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북한 경제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sup>4</sup>에서 북한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을 정리하였다. 긍정적인 관점

은 북한 경제가 제재를 버틸 만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먼저 북한의 수출액이 90% 가까이 급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입은 약 33% 정도만 감소되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즉 제재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의 수입을 유지할만한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시장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사실은 대외교역은 침체될지언정 대내경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란이 경제 제재로 20%가량의 교역량이 감소되었을 때 물가가 5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북한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밀수 등 비공식 무역의 활성화와 잘 갖춰진 시장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이 주요했을 것이며 북한 당국의 국산화 정책 등 정책적인 노력도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마냥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북한 경제가 이미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먼저 북한에서는 자국 화폐인 북한 ‘원’ 대신 중국 ‘위안화’나 미국 ‘달러화’가 사실상 실질적인 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이미 북한 내에서의 주요 교역은 위안이나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 원은 보조적인 외화를 표기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돈 1000원이면 달러화로 1달러 식으로). 따라서 북한의 시장 물가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시장의 물가와 연동되어있는 상황이다. 북한 사정과 상관없이 위안이나 달러 기반의 물건 가

3 정형근, “2018년도 북중무역과 제재효과”,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3월호, 81-85.

4 이석, “총괄: 2018년 북한경제, 위기인가 버티기인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2월호, 3-28.

격은 일정할 것이기에 설사 북한 내에서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되더라도 바로 외부에서 더 저렴한 같은 물건이 수입되어 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이다. 즉 북한 시장 물가는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북한 경제가 이미 세계 경제와 일정부분 통합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재 국면에서 북한 경제 상황은 시장 가격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 즉 외화가 얼마나 있는냐는 점이다. 공급은 원활하더라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면 물건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된다. 시장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하락하더라도 그것이 경제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내에 외화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구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견해를 뒷받침하는 현상은 부동산 경기 침체이다. 공급이 단시일 내에 변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수요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평양의 부동산 가격은 20년동안 상승 일변도를 달렸으나 2018년도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sup>5</sup> 제재로 인한 외화 감소 및 소득 감소로 자연스럽게 부동산 수요도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르면 현 북한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이석 연구원은 추가적인 논문을 통해 북

한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가설 하에서 대외 무역 붕괴, 소득 하락, 그리고 달러 공급량 하락으로 인한 시장 물가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제 2차 소득 하락 현상 및 전면적인 경제 위기로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sup>6</sup>

북한의 폐쇄적인 구조로 인한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어떠한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일부 통계 및 수치만을 바탕으로 북한 경제가 별일 없이 돌아간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비상식적인 경제 구조를 고려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재에 대응하는 북한의 노력

북한 경제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는냐는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외화 확보가 가능한가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북한 당국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인지 제재를 피해서 외화를 벌 수 있는 방안을 부지런히 개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활성화하고자 애쓰는 사업은 바로 관광이다. 북한은 평양을 오가는 비행기 노선을 지속 확충하고 있고, 평양 외에도 신의주나 삼지연, 혜산, 칠보산, 등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루나 이틀 코스의 짧은 관광까지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 개발된 단동-신의주 반나

5 참고 기사: 주성하,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 사이]외환 위기 터진 평양, 반값 폭락한 집값”, 동아일보, 2019. 1. 30. / 문동희, “부동산 가격 폭락에도 평양 아파트 건설 활발”, 데일리 NK, 2018.10.26.

6 이석, “북한의 새 경제와 대북제재: 분석과 가설”, KDI 북한 경제리뷰 2019년 6월호, 3-31.

절 관광은 인기가 높아 7개월만에 이용객 수가 2만명이 넘기도 했다.<sup>7</sup> 2018년에는 하루 최대 2000여명의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2019년 3월에는 평양 숙박시설 등 관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여 1일 관광객을 1천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sup>8</sup>

북한의 관광 산업은 특별히 중국과의 관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비행 노선이나 관광 수요가 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등을 기점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sup>9</sup> 중국의 대북 원조도 재개되었다. 2012년 1억 2천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7년에는 완전 중단되었던 중국의 원조는 2018년도에 다시 재개 되어 5천 6백만 달러 가량이 지원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외화 획득 노력과 함께 내부적으로 내수를 활용하는 전략도 활용하고 있다. 즉 제재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덜 받는 산업과 품목에 집중하고, 내수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2018년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면 먼저 대북 제재의 영향이 적은 경공업 분야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제재 대상인 광물 대신 이를 가공한 가공품, 그리고 수출길이 막힌 석탄을 원료로 사용

하는 탄소하나화학공업 등을 정책적으로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0</sup> 이러한 북한의 정책적 대응의 방향을 볼 때 앞으로도 내수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앞으로 내수, 즉 시장과 비공식 부문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중에 있는 유희화폐 및 외화를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았다.<sup>11</sup> 이런 맥락에서 시장의 공식화 및 제도화 등 북한의 내부적 경제 정책의 향방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 북한 경제에 대한 우려

제재를 이겨내려는 북한 당국의 노력과 민간 부분의 비공식 교역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북한이 생각보다 잘 견디고 있다는 것이지 제재의 효과가 없다거나 북한 경제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재로 인한 수출 악화는 결국은 외화, 즉 달러 부족을 불러올 것이고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북한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심상치 않게 들리는

7 김한규, “중국인 북한관광의 흐름과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7월호,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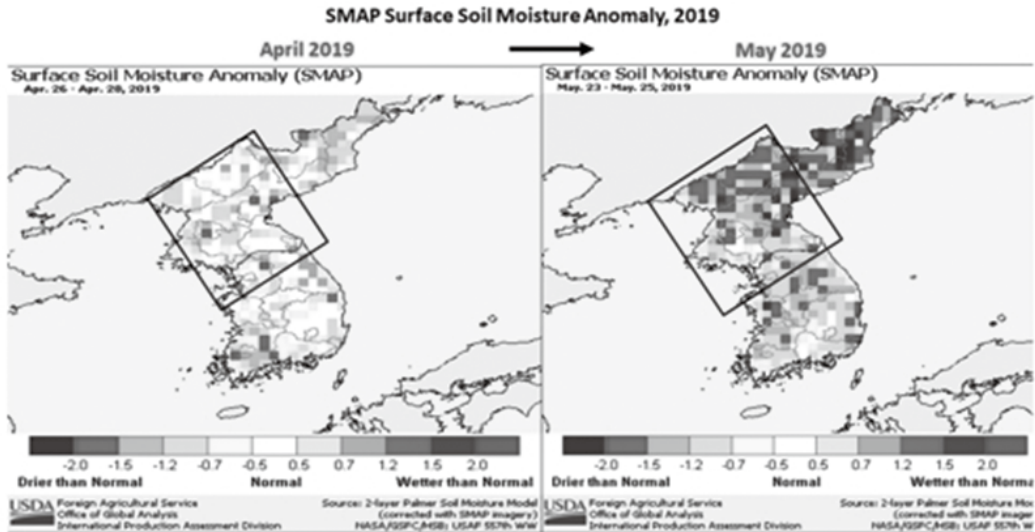
8 “북한 18일부터 하루 외국관광객 1000명으로 제한”, 서울신문, 2019.03.1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12500064>>

9 “북중 관계 개선에 중국인 북한 관광 최대 50% 급증”, 연합뉴스, 2019.07.16.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6058200083>>

10 이종규,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정책대응: 2018년 동향 및 2019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2월호, 34-35.

11 같은 글, 36-37.





〈미국 농무부가 7월 22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 게재된 토양 내 수분 분석 자료. 인공위성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토양은 흰색(보통)을 기준으로 붉어질수록 건조, 파란색 계통으로 진해질수록 습윤하다는 의미. 올해 4월(왼쪽)에 비해 5월(오른쪽)에 토양 건조 현상이 심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유는 최근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기근과 굶주림에 대한 소식 때문이다. 충분한 식량 생산을 위해서는 여러 농기구와 비료, 농약 등 충분한 자원이 사용되어야 하지만 관련 물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북한으로써는 부족한 외화를 농업 분야에 제대로 투자할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 UN 산하 세계 식량 기구 및 식량 농업 기구는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근 10년 내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일찍부터 전망해왔다. 미 농무국 등도 위성사진 분석등을 통해 북한 내 가뭄으로 인한 모내기 차질 등으로 식량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재로 인한 어려움에 식량 생산마저 차질이 생길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결국 북한 내에서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다. 이미 조중국경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해져 가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군인들이 식량 부족으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아사자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열악한 지역이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린다. 올해 농사 작황에 대해서도 가뭄으로 인해 흉작이 염려된다는 이야기가 많다. 직접적인 실태 확인은 어렵지만 직간접적으로 북한 식량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경제의 또 다른 위험 요소는 중국 의존도의 심화를 꼽을 수 있다. 기존에도 대외 무역에서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컸지만, 제재 이후 비공식 무역에 의존하게 되면서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압도적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 북한이 새로운 외화벌이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관광 산업의 경우에도 중국 관광객이 주가 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나 이전 사드 사태 당시 경험했던 중국의 관광 무기화를 생각해볼 때 북한의 과도한



중국 의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 선교적 전망과 우리의 기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식량난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특히 서민들의 생활이 위태로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첫번째로 이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즉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 악화는 결국 경제재제 해제가 가장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현 경제 재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차에 이르는 핵실험을 비롯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행함으로써 점차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져 지금에 이른 것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인 제재 해제는 한반도 전반에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결국 북한 당국이 제대로 핵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태 해결 방안이다. 북한 당국은 핵 보유를 정권 안정과 연계하여 보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계보다도 정권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움직이고 있다. 남한을 비롯한 국제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지원을 거부하는 북한 당국의 모습에서도 정치적 입장에 매몰된 나머지 주민들의 생활을 경시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북한의 행보가 바뀌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북한 사회의 새로운 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북한은 제재를 견

디기 위해 제재 대상이 아닌 분야의 교류의 활성화 및 내수 경제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민간 교역의 활성화와 국영기업들의 자율화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밀수를 통한 비공식 교역은 당연히 암묵적 묵인 하에 증대될 것이고 그 외에도 외화 획득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자유가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통한 초기적인 시민사회 형성 등 새로운 사회적 변화 역시 기대하며 기도할 제목이다.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영혼들에게 필요한 영육간 생명의 양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경제적 어려움이나 식량난은 고위층이나 부자들보다도 일반 서민들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도움의 손길이 긴급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육체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예상되는 고난이 고통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기대할 수 없었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줄 확신한다. 

#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동향과 전망

오 일 환 (슈빌리통일구국기도회 대외협력본부장 / 기독교통일학회 명예회장)

북한은 90년대 초에 소련 및 동구권의 사회주의국가의 붕괴로 사회주의 시장의 상실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으로 말미암아 외화난, 식량난, 에너지난 등으로 극심한 경제난에 처했다.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과 함께 내리막길을 내달렸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생산 부문에서는 국가예산의 대폭적인 감소, 공장·기업소에 대한 국가자금 지원규모 축소, 공장가동률 저하, 계획목표 미달성, 계획경제시스템의 한계 노출 등이 존재했었다. 소비부문에서는 국가배급체계의 붕괴, 가계의 자력적인 생존 상황과 시장의존, 사경제부문의 확산, 계획경제체제의 기형화 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김정일은 경제회생을 위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새로운 경제회생 전략을 모색했다. 그리하여 2002년 7월 1일, 7·1경제관리개선 조치를 통해 북한식 개혁·개방을 추진했다.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시스템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한 것으로,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계획경제의 관성으로 인하

여 성공하기에는 애당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7·1경제관리개선 조치는 북한이 기존의 정치이념과 체제를 개혁하지 않고, 집단주의 경제와 계획경제의 기본틀을 유지한 채, 일부 경제 부분에서만 실리를 추구하는 시장경제 기능을 도입한 조치였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사망하자, 북한은 김정은 시대로 진입했다. 김정은 정권은 시장제도의 입법화를 통해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경제개방구’를 설치하여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했다. 일시적 이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히는 듯했다. 당시 북한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거듭했던 것은 무연탄의 대중(對中) 수출이 급증했고, 무연탄의 국제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난 효과에 힘입은 탓이었다.

그러나 2013년 3월,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운 이후 김정은 정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능력을 계속해서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자초하였고, 이로 인하여 북한 경제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다.



〈북한 핵실험 일지 (연합뉴스)〉

김정은 집권 이후 2013년 2월 12일에 제3차 핵실험, 2016년 1월 6일에 제4차 핵실험, 2016년 9월 9일에 제5차 핵실험, 2017년 9월 3일에 제6차 핵실험을 각각 감행했다. 특히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을 두고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탑재용 수소탄 시험이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북한의 핵 개발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실험은 유엔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자초하였다.

무엇보다도 북핵문제의 이해당사국인 미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에는 돈줄을 죄고 경제를 봉쇄하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 미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북한

에 대해 실물 이동 제한에 초점을 둔 「행정명령 13772호」와 특정 북한 기업이나 은행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한 「행정명령 13810호」 등 2건의 행정명령, 기존의 금융·경제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자금줄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북제재 강화법」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를 비롯하여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인터넷 온라인 상품 거래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 등 2건의 제재법을 통해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7년 9월에 서명한 「행정명령 13810호」 내용 가운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게 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한편, 2016년 이후 2017년 12월까지 나온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5개의 제재 결의안(2270호, 2321호, 2371호, 2375호, 2397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대북수출입 금지 현황

##### ○UNSCR 2270(2016.3.22.)

- WMD와 관련된 무연탄 및 철·철광석 금지(단 민생목적 예외)
- 금, 바나듐 광, 희토류 금지
- 항공유 수출 금지(인도주의적 용도 및 북한 민항기 해외 급유 제외)

##### ○UNSCR 2321(2016.11.30.)

- 북한 무연탄 4억 달러 또는 750만 톤 중 작은 쪽 선택
- 은, 동, 아연, 니켈 금지

##### ○UNSCR 2371(2017.8.5.)

- 북한산 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전면금지

##### ○UNSCR 2375(2017.9.11.)

- 북한산 식물 및 의류 완제품 전면 금지
- 정제유 200만 배럴
- 원유 400만 배럴(LNG, 콘텐세이트 전면 금지)

##### ○UNSCR 2397(2017.12.22.)

- 북한식 식품,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 선박 수입금지(단 민생 목적 허용, 연간 400만 배럴)
- 정제유 금지(단, 민생 목적 허용, 연간 50만 배럴)

#### ◆ 대북사업 금지 현황

##### ○UNSCR 2270(2016.3.22.)

- 북한 행(行)·발화물 전수조사
- 북한은행 해외지점 개설 금지

##### ○UNSCR 2321(2016.11.30.)

- 회원국의 북한 내 금융기관 폐쇄 및 무역금융지원 금지
- 북한인 수화물 및 화물검색 의무화
- 북한 국적 선박의 소유, 운영, 대여, 보험 제공 금지

##### ○UNSCR 2371(2017.8.5.)

- 해외 노동자 현 수준 동결
- 북한과 합작사업 신설 및 확대금지
- 제재위가 제재선박 지정 후 회원국은 입항 불허
- 일반 회사의 금융서비스 제공 불가

##### ○UNSCR 2375(2017.9.11.)

- 북한 노동자의 신규허가 금지
- 북한과 합작사업 전면금지(120일 이내 폐쇄)
-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화물 이송 금지

##### ○UNSCR 2397(2017.12.22.)

- 해외 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 어획권 구입 금지



### - 북한선박에 대한 해상차단 의무화

이 같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는 당연히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게 마련이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즉 석탄 수출금지, 해외 노동자 송환, 수산물 및 의류 임가공 수출 금지, 원유 동결 및 석유 수입 50만 배럴 제한 등은 북한의 외화 획득 통로를 90% 이상 틀어막는 효과를 수반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통상 분쟁으로 말미암아 수세에 몰린 중국이 수동적이나마 대북 제재에 가담한 것도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2018년 들어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북·미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들로 말미암아 북한이 비핵화에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개혁과 개방의 문을 어느 정도 연다면, 제재가 약화되며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과는 달리 비핵화는 조금도 진전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 결과는 북한 경제의 추락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26일 「2018년 북한 경

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이 -4.1%를 기록했다며 2017년(-3.5%) 이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대기근이 발생했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6.5%)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수치에 해당하는 경제성장률이다. 한국은행은 그 주된 원인으로 대북 제재 강화와 극심한 폭염의 결과로 분석했다. 폭염은 북한 경제에 비중이 큰 농림어업과 광업의 생산성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지난 7월 18일 북한의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금년 하반기에도 제재 효과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고 전반적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도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 나서지 않는 한, 개혁·개방의 문을 열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 상황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과 북한의 계산이 동상이몽에 머무는 한 북한 비핵화의 매듭은 한 올도 풀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틀날인 2월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 이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회담 도중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렸던 북·미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한동안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북한 경제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미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과 무기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역내 무역 동맹과 미군, 동맹을 위협에 빠뜨리는 북한 정권의 활동과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조치를 내렸다. 이는 트럼프가 미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세 번째 조치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이날 미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에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부

터 2017년 9월의 「행정명령 13810호」까지 모두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6건의 대통령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주요 인사의 자산 동결,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광물 거래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이 비핵화에 미온적일 경우, 북한의 비핵화 진전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오히려 핵전력을 더욱 강화하는 시간을 벌 가능성이 크다. 이는 또다시 미국과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 강화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한 북한경제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북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6월 20~21일 북한 국민 방문 당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국제사회의 자본투자와 기술 유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요 국영기업들마저도 부품과 자재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의류 등 임가공 수출이 막히면서 경공업 분야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북한이 미국의 요구 조건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중국에 밀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중 정상회담이 2018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이후 불과 10개월 사이에 무려 네 차례나 개최되었다. 특히 김정은은 지난해 6월 12일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불과 1주일 만인 6월 19~20일,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3차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고, 금년 2월 말 트럼프와의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인 1월 8일에는 베이징에서 4차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금년 들어 북·중 간 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북·중 정상회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8월 8일에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북한-중국 무역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무역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1월과 2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 8.8%와 - 4.5%를 기록해 감소세를 보였지만, 3월과 4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38.1%와 39.3% 증가했다. 5월(19.1%)과 6월(8.7%)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6년과 2017년 대북제재 강화에 따라 북중 무역규모가 감소했지만, 금년 3월부터 무역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유엔안보리 제재로 비제재 품목의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만약에 미국과 중국 양국 간에 ‘무역전쟁’이 격화될 경우, 제재 물품이 포함되면서 앞으로 북한의 대 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불가피하고 그로 인해 닥쳐올 고통스러운 경제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개혁·개방을 외면한 채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에 기댈 경우, 근근이 버틸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원하는 경제 회복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체제 유지에 급급하며 북·중·러 삼각연대 결속에 치중한다면, 이는 동북아시아에 ‘신냉전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역내 공동번영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짓이 되고 말 것이다.

한편, 북한이 기존의 수령절대주의체제에 머물러 있는 한 북한의 비핵화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보유국 의지가 김정은 정권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6년 5월 노동당 제7차 당대회 기간 내내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김정은 당 유일영도체제 확립’이 크게 강조되었는데, 이는 김정은의 권력 유지 및 강화의 명분으로 크게 강조될 슬로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결국 김정은 정권은 제7차 당대회를 통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공식 통치이데올로기로 천명하였으며, 이는 수령절대주의체제의 고수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벗어던지고 ‘경제건설 집중 노선’을 택했다고 해서 이것

이 현실화되리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일이다. 2013년 3월, 김정은 시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우고는 “혁명의 최고 이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며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20일에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결속(結束)’고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했다. 김정은은 회의 보고에서 “병진노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 것처럼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핵을 완성한 만큼 이제 핵·경제 병진노선을 일 단락 짓고,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완성했다고 호언하는 상황에서 경제건설은 답보상태에 있다. 그것은 북핵문제

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망령에 사로잡힌 나머지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다. 북한주민은 더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평화통일의 길도 더욱 멀어지고 말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하루 속히 핵보유국 의지를 접고 속히 개혁·개방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게 할 때, 국제사회의 협조와 함께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 활짝 펼쳐질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일이 속히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어도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눅 18:27)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주실 것이고, 마침내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



#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동향

정은찬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 I. 2019년의 북한

북한은 현재 유엔안보리와 미국 등의 국가들로부터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대북제재의 목적은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데 있다. 유엔안보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핵을 개발한 북한의 불법성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10.14.), 1874호(2009.6.12.), 2087호(2013.1.22.), 2094호(2013.3.7.), 2270호(2016.3.2.), 2321(2016.11.30.), 2371호(2017.8.5.), 2375호(2017.9.11.)를 채택하여 이행 중에 있다.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도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2016.1.6.)과 장거리미사일발사(2016.2.7.)에 대응하여 개성공단 폐쇄(2016.2.10.)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대북제재에 그럭저럭 버텨오던 북한은 2018년 들어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며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본격적 행보에 돌입하였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2018.4.27., 5.26, 9.18),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2018.6.12., 2019.2.27., 2019.6.30.), 다섯 차례의 북중정상회담(2018.3.5., 5.7, 6.19, 2019.1.8., 6.20), 한 차례의 북러정상회담(2019.4.25.)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대북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협상이 노딜(NOdeal)로 끝난 이후 북한은 판문점에서의 3차 북미정상회담에 적극 임하는 등 여전히 비핵화 협상을 통한 대북제재 해제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대북제재가 북한경제는 물론 체제유지, 주민 경제심리 등에 어느 정도 위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반증해준다. 과연 대북제재는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본고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북제재의 경과와 영향을 진단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

## II. 대북제재의 경과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인 1950년 6월 28일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 of 1949)’에 따른 미국의 대북 금수조치로부터 시작되었다. 같은 해 12월 미국은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을 적용하여 대북 교역 및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당시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을 유엔헌장 제7장을 위반하고 한국전쟁을 발발한 원흉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후 미국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제정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환경을 만들고, 1988년 KAL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여 미국 및 제3국의 대북수출통제 강화를 추진하였다. 1990년대 1차 북핵위기가 조성되었던 시기에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전략물자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였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이 강행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현실화되면서 미국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주도하고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병행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1차 핵실험(2006.10.9.) 이후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1718호(2006.10.14.)에 의해 대량살상무기(WMD)관련 부품, 물자거래의 금지, 사치품의 거래 금지, 북한 출발로 의심되는 선박 검색 요청 등의 제재를, 2차 핵실험(2009.5.25.) 이후 대북제재 1874호(2009.6.12.)에 의해 소형무기 거래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북한 출발로 의심되는 선박 검색을 촉구하는 제재를 추가로 받게 되었다. 3차 핵실험(2013.2.12.) 이후에는 2094호(2013.3.7.)에 따라 기존제재에 추가하여 선박 및 항공기 검색, 금융제재가 의무화되었으며, 4차 핵실험(2016.1.6.) 이후 채택된 대북제재 2270호(2016.3.2.)에서는 기존제재에 재래식무기 캐치올(Catch-All) 의무화, 민생목적의 석탄수출을 제외한 금·희토류·티타늄 등의 수출 금지, 사치품 유입 금지품목 12개 확대, 북한금융계좌 전부 폐쇄 등이 추가되었다. 5차 핵실험(2016.9.9.) 이후 대북제재 2321호(2016.11.30.) 결의에 의해 석탄, 철광석 수출 상한조치와 노동력 수출 규제, 6차 핵실험(2017.9.3.) 이후 2375호(2017.

〈표-1〉 유엔안보리 결의 내용

계기	결의안	계기	결의안
1차 핵실험 (2006.10.9)	1718호 (2006.10.14)	5차 핵실험 (2016.9.9)	2321호 (2016.11.30)
2차 핵실험 (2009.5.25)	1874호 (2009.6.12)	중단거리탄도미사일발사	2356호 (2017.6.2)
장거리탄도미사일(은하 3호)발사 (2012.12.12)	2087호 (2013.1.22)	북한발표:ICBM 탄도미사일발사 (2017.7.4, 7.28)	2371호 (2017.8.5)
3차 핵실험 (2013.2.12)	2094호 (2013.3.7)	6차 핵실험 (2017.9.3)	2375호 (2017.9.11)
4차 핵실험 (2016.1.6)	2270호 (2016.3.2)	장거리탄도미사일(화성 15호)발사 (2017.11.29)	2397호 (2017.12.22)

자료: <http://www.un.org/>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9.11)에 의해 위탁가공 섬유류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신(新)고용 금지, 대북한 원유수출 30% 이상 감축, 북한과의 합영·합작 금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가동 등의 제재를 추가로 받고 있다.

한편,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에 따른 국제사회 및 관련국가의 대북제재도 받고 있다. 2012년 12월 12일 ICBM발사 이후 대북제재 2087호(2013.1.22.)에 따라 기존의 제재에 군사전용으로 의심되는 물품수출을 통제받고 회원국들 간 Catch-All 강화, 금융결제 거래 금지 및 대량 현금 유통 제한 등을 추가로 받고 있다. 2017년 7월 4일 ICBM발사 이후 채택된 2371호(2017.8.5.)에 의해서는 북한 노동력 해외수출 전면 동결, 광물자원과 수산물수출 전면 금지, 북한의 기업 및 개인과 신규 합작을 금지하는 제재가 추가되었다.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여 유엔안보리

로부터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북제재 2397호(2017.12)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Ⅲ. 대북제재의 영향

대북제재에 의한 경제적 압박 강화로 북한은 현재 대외교역이 크게 위축되고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의 위기 상황 징후들을 드러내고 있다. 대북제재의 북한경제 영향에 대한 평가는 ‘미미하다’와 ‘버티기 힘든 위기다’로 엇갈린다. ‘미미하다’고 평가하는 논저에는 대북제재가 강행되는 속에서도 북한의 시장 물가가 큰 변동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버티기 힘든 위기다’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지표상에 드러난 북한경제 현황이 심각함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표-2〉 북한의 경제규모 및 현황

구분	북한(A)		남한(B)		B/A(배)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명목 GNI(한국 조원)	36.6 (0.7)	35.9 (-2.0)	1,843.2 (5.5)	1,898.5 (3.0)	50.3	52.9
1인당 GNI(한국 만원)	146.4 (0.2)	142.8 (-2.5)	3,588.6 (5.2)	3,678.7 (2.5)	24.5	25.8
인구(천 명)	25,014	25,132	51,362	51,607	2.1	2.1
대외무역규모(억 달러)	55.5 (-15.0)	28.4 (-48.8)	10,521.7 (16.7)	11,400.6 (8.4)	189.6	401.4
GDP 경제성장률(%)	-3.5	-4.1	3.2	2.7		

\*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2019.7)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본격 행보를 볼 때 북한이 결코 제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 직면해있음을 읽을 수 있다.

대북제재의 영향은 어느 한순간에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장기간 대북제재가 강행되었으나, 2016년 이전까지 그 영향력은 크게 평가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2016년 말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지표는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도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까?'라는 논점에서 '대북제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일까?'에 집중되고 있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김정일 통치시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뒤로 한 채 북한경제는 2016년 3.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17년 -3.5%, 2018년 -4.1% 기록하는 등 상당한 정도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음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2018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35.9조원(한화)으로 전년(36.6조원) 대비 2% 감소하였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42.8만원(한화)로 전년(146.4만원) 대비

2.5% 감소하였다. 대외무역규모도 2018년 28.4억 달러로 2017년 55.5억 달러 대비 48.4% 감소하였다. 특히 80% 이상이 시장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북한주민의 대북제재에 대한 심리위축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은 사실상 통계자료의 제한으로 구체적 데이터로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최근 북한의 거시경제지표 변화를 참조하면 경제가 상당한 정도로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북한 내 휴민트를 통한 시장 현황을 파악해보면, 시장가격에서의 큰 변동은 나타나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경제가 대외무역규모가 위축되어 외화보유의 위기에 직면한 반면, 내수시장에서 유통되는 외화량이 아직까지는 '북한 원화 통화량' 조절에 기여하고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즉, 북한이 2016년 이전에 보유한 외화가 많은 규모여서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로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당분간은 제어할 수 있다는 전제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은 “북한의 외화수급 누적액이 1991년 이후 126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2000년 이후 축적된 것으로서 김정은 집권 이후 5년간(2012~2016) 연평균 12억 달러씩 흑자를 거두었다. 그러나 6차 핵실험 이후의 대북제재에 의해 향후 7년 안에 북한의 외화수급은 고갈될 것이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실제로 체제통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들이 차단되는 압박이 장기화되면 북한경제는 향후 더욱 위기에 노출될 것임을 시사한다.

북한경제의 위기는 2016년 말~2017년 초부터 더욱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1차 핵실험부터 4차 핵실험 이후까지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외무역(일반교역)에 결정타를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대북제재의 주된 목표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것에 집중되어 있었고, 북한의 핵심지지를 위한 사치품 수입 제한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5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부터는 북한의 일반교역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여 2017년 북한의 일반교역이 대폭 감소하는 등의 제재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6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2017.9.11.)는 이러한 북한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의 대외무역구조는 수입을 하기 위해 수출을 하는 구조이다. 주요 수입품은 원유와 휘발유를 비롯한 정제유이며 그 외 전자기기, 기계류, 중화학제품, 운송수단 등이다.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외화마련으로서 무연탄을 비롯한 광물, 섬유 및 의류, 수산물, 농식품 등의 수출과 해외노동자 파견, 관광 등을 촉진하고 있다. 유엔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인 무연탄, 섬유 및 의류, 수산물 수출을 전면적으로 차단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북한의 대외교역규모는 실제로 2017년 보다 2018년에 48.8% 감소하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단둥 세관 앞에 서 있는 무역화물 차량들〉

였다. 그러나,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 제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시장 물가 및 환율은 큰 변동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대중 수입이 33% 이상 감소하였으나, 시장 쌀 1kg 가격은 4,500~5,000원(북한 원)과 시장에서의 달러 환율은 1달러당 8,000원(북한 원)대로 안정적이다. 이는 북한이 아직까지는 기존에 보유한 외화규모로 '북한원화 통화량'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며, 한편으로 공식창구를 통한 대중무역 제한을 비공식 창구(중국과 인접한 국경연선에서의 공식무역 재개)를 활용하여 버티고 있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

#### IV. 우리의 과제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압박으로 북한경제는 위기 징후들이 지표상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의 물가와 환율 영향에는 크게 영

향을 미치지 못하고 제한적인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저럭 버티기 상황에 있는 북한경제의 부분적 현상은 핵문제 해결을 통한 대북제재 해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민생경제 위기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그 피해는 북한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대북제재가 강행되는 속에서 대외적인 출로를 해결하지 못한 북한은 향후에도 자구책으로 '자력갱생', '우리국가제일주의', '자립경제'를 표방하며 주민들을 동원하는 한편 내부예비 탐구동원의 명목으로 경제적 부담(수탈)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실천하여 대북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회생 출로가 하루빨리 열려 북한주민의 안정된 경제생활 환경이 보장되도록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동향

안 찬 일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 1. 지난해 성장률 -4.1% 곤두박질

지난해 북한 경제가 21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1월부터 이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9조 60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대규모 기근에 시달린 1997년(-6.5%) 후 21년 만에 최악의 경제 상황이다. 북한 경제는 2016년 3.9% 성장했지만 2017년 -3.5%로 돌아서는 등 최근 2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2위인 광공업(비중 29.4%)과 농림·어업(23.3%) 부진이 전체 경제를 끌어내렸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1.8%) 광업(-17.8%) 제조업(-9.1%) 등 주력 산업 생산이 역대 최악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한은은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줬고 지난해에는 연장으로 대북제재가 영향을 줬다”며 “곡물생산이 폭염 등의 영향으로 줄어든 가운데 광물 생산이 석탄, 금속, 비금속 모두 크게 감소했으며

제조업 생산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뤄진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는 원유와 정유의 수입을 제한하고 농산물과 해산물, 기계류, 섬유, 광물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따라서 북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어업의 경우 지난해 -1.8%를 기록했다. 전년(-1.3%)에 비해서 낮은 수준인 동시에 지난 2010년 -2.1% 이후 8년 만에 최저다. 광업도 지난 2017년 -11.0%에서 지난해 -17.8%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지난해(-17.8%)는 1990년 추계 이후 최저치다. 같은 기간 제조업도 지난 1997년(-18.3%)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인 -9.1%로 악화되는 모습이었다.

지난해 북한의 산업구조의 특징을 보면 광공업의 비중이 지난 2017년 31.8%에서 지난해 29.4%로 비중 하락했다. 반면 농림어업은 같은 기간 22.8% → 23.3%로 확대됐다. 아울러 전기·가스·수도업(5.0% → 5.4%), 건설업(8.6% → 8.9%), 서비스업(31.7% → 33.0%) 등도 비중이 상승했다. 지난해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GNI)은 35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남한



〈2016년 7월 북한 나진항 부두에서 중국 수출용 석탄을 선적하는 모습. (AP=연합뉴스)〉

1898조5000억 원의 53분의 1(1.9%) 수준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2만 8000원으로 한국(3678만 7000원)의 26분의 1(3.9%) 수준을 보였다.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지난해 28억 4000만 달러로 전년(55억5000만 달러)에 비해 48.8% 감소했다. 여기에는 남북간 반출입은 제외된다. 먼저 수출은 2억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86.3%가 감소했다. 섬유제품(-99.5%)과 광물성생산물(-92.4%)이 감소세를 주도했다. 수입도 수송기기(-99.0%), 기계류(-97.3%)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31.2% 감소한 26억달러를 기록했다. 한은은 "유엔의 대북 제재의 대부분은 중국이 이행해야 할 제재"라며 "시차는 좀 있지만 유엔이 제재를 한 이후 중국이 바로 실효성 있게 시행했다"고 전했다. 북한 경제가 이처럼 나빠진 것은 유엔 경제제

재 여파로 수출·수입이 대폭 쪼그라든 탓이다. 지난해 대외교역(수출·수입)은 28억 4000만 달러로 전년(55억 5000만 달러)과 비교해 반토막이 났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인 석탄을 비롯한 광물성 생산품은 무려 92.4% 감소했다. 유엔 안보리가 2016년 11월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 2321호를 채택한 이후 북한의 광물성생산물 수출길이 막힌 영향이다. 지난해 폭염 여파로 곡물 생산이 감소하면서 농업도 타격을 입었다.

## 2. 트럼프의 판문점 방문 이후 미국 자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전면 폐기(full closure)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에 동의할 경

우 12~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이 효과가 있을 경우 다른 시설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로 고려 중이며 사실상의 종전 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영변 폐기와 핵 동결을 대가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섬유의 수출 제재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사실상의 제재 완화'를 미국이 검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악관 내 북한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은 7월 11일(현지시간) "미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및 제재 완화와 관련해 최근 이러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모든 건물이 폐쇄되고 모든 작업이 중단되는 것을, 핵 프로그램 동결은 핵분열성 물질과 탄두를 더는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식통은 "이런 조치를 통해 만약 진전이 있을 경우 제재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의도를 시험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주며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북한의 핵 동결과 영변 폐기에 대한 검증과 사찰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매우 까다로울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망했다.

소식통은 합의 이행과 관련, "만약 북한이 속임수를 쓴다면 제재는 스냅백(위반행위 시 제재 복원) 형식으로 다시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모델이 만약 효과가 있다면 다른 시설들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이 완전히 폐기되고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러한 방안은 미국 입장에서선 연장이 가능한 제재 유예 조치로 신뢰를 구축해 북한의 더욱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스냅백 조항을 두는 것은 제재 완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소식통은 "백악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도록 장려하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에 열려있다"면서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인센티브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에 열려있다"고 전했다. 향후 협상에서 미국의 첫 번째 목표는 북한에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상대임을 증명하고 북미 간 적대적 의도가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됐음을 확실히 하기 위한 '역사적인 무언가'를 하기 원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백악관은 영변 폐기와 핵 동결에 따른 대북 제재 유예 외에도 사실상의 종전 선언인 '평화 선언'(peace declaration)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는 조약의 형태가 아니고 북미가 더는 무력 분쟁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한국전쟁의 종식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도 검토 방안의 하나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아울러 북한 내의 한국전 미군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 사업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어떤 종류의 사무소 설치도 미측이 고려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런 방안들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달



미 싱크탱크 행사에서 언급한 '유연한 접근'이 구체화하는 것인지와 맞물려 관심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대북정책에서 모종의 성과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다양한 방안 검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노딜'로 끝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부터 강조해온 비핵화의 정의와 대량살상무기(WMD) 동결 등을 포함, 포괄적 합의를 통한 접근법을 내려놓는 것인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 3. 외부제재와 내부 장마당의 발전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은 협동농장이나 직장

업무인 공식적인 활동보다 부업과 장사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한 배경은 식량배급이 중단되면서 부터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불규칙적인 배급공급제도로 인해 암시장이 생겨나고 정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장사에 나서게 된 것은 1993~1994년경부터다. 국영상점들에서는 상품이 소진했지만 장마당에서는 상품이 차고 넘쳤다.

주민들에게 배급할 능력을 잃어버린 북한의 권력도 시장을 통해 살아가야 할 형편이 되면서 당국의 통제력도 약화되었다. 장마당에서는 판매 금지 품목으로 규정했던 쌀과 옥수수 등은 물론 공산품과 유류, 외제 상품까지 다양하



〈장마당의 다양한 참여자들 (노컷뉴스 인포그래픽)〉

게 거래되기 시작했다. 암시장에서 활발했던 외환시장의 환율 정보는 점차 활성화에 이른 장마당에서 유류와 의류, 식용품 등 외제 상품의 시세 책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원유가 없는 북한에서 국제 유류시세를 모르면서는 장마당 내에서의 유류 값 책정이 불가능했다. 장마당에 팔고 있는 상품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유입한 상품이었으며 일본 상품과 한국 상품 역시 중국 상인과 재일교포들을 통해 유통되었다. 장마당이 점차 상품 만능의 천국으로 변해가면서 외제 과일류인 파인애플과 바나나, 해외 화장품과 액세서리까지 정보를 통해 가격이 설정되었고, 정보는 곧 시장과 밀접한 관계의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장마당 상품 공급의 일등 공신인 외화벌이 기관들도 장마당 변혁에 합세했다.

국가 경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통치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자 북한 당국은 1997년부터 ‘충성자금’ 명목 하에 각 단위들에게 외화벌이를 장려하며 무작위로 승인해 외화벌이 부작용을 초래했다. ‘충성자금’ 조달을 합법적으로 해왔던 ‘와크’(중국과 직접 무역을 할 수 있게 승인하는 절차)를 받은 무역기관 외에 외화벌이와 전혀 무관한 단체들까지 외화벌이를 공식적으로 허용해주도록 하는 노동당의 지침서가 발표되었던 것이다. 이 지침서에 따라 북한 전역에서 바다 해산물과 송이버섯, 광물, 금, 석탄 등 다양한 원천을 동원한 외화벌이 기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

이들은 중국과 동남아 등에 다양한 종류의 외화 원천을 판매하고 대체 상품을 받아와 국제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장마당에 내다 팔아 이

윤을 챙겼다. 특히 외화벌이를 명목으로 해외 출장이 잦아지면서 외부 정보도 다양한 방식으로 장마당으로 유입되었다. 특히 장마당 상행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운수수단으로 북한 상인이라면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일본산 자전거는 외화벌이 기관 활약으로 이뤄진 값진 성과물이기도 하다. 자전거 외에 자가용 차 등록이 불허된 북한에서 중국·일본·한국의 차를 들여와 국가에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한 것도 외화벌이기구라는 것이다. 국가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배급제가 불가능했지만, 일개인이 운영하는 외화벌이 기관에서는 본인은 물론 가족배급이 이루어졌고, 연말 보너스도 포함되어 주민들은 누구나 외화벌이 기관 근무를 선호하게 되었다. 즉 외화벌이는 철저히 통제된 북한 사회에 존재하는 자본주의 기업의 경영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보는 이미 외환정보를 넘어 북한 장마당의 상품 유통과 외화벌이기관의 운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사회주의 우월성을 고취하는 당국의 선전의 모순점을 발견하는 도구로 작용했다. 북한에서 물리적·억압적인 사회통제를 주관하는 대표적인 기구는 인민보안성과 국가보위성이다. 이 기구들은 통제는 물론 북한의 모든 정보 통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통제가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감시와 검열·처벌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 두 기구에서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비밀 정보원을 파견해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

비밀 정보원은 해당 구역에 배치되어 일반주민은 물론 간부들의 사상동향과 경제상황 등

상시 동태를 파악한다. 라디오 청취를 통한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행위 등 각종 비디오, 서적 등 금지된 품목의 소지와 위법행위를 당국의 정보 통제 내용에 준하여 감시해 담당 보안원 또는 보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외부 정보 유입행위는 북한에서 정치적 사건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왔으며 보안성이나 보위부의 무자비한 숙청으로 주민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은 인민보안성과 국가보위성 등 특수 기관 종사자의 복지를 붕괴시켰고,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면서 국가 권력의 통제가 약해진다. 즉 물질만능의 사회로 전락하게 되면서 국가권력도 이에 협력하게 된다. 경제 사정이 더욱 악화하면서, 특수 기관들도 외화벌이를 하지 않으면 그 운영이 힘들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을 하게 된다. 사회 치안 상황이 점차 허술해지자 북한 주민들은 밀봉한 라디오나 TV 채널을 해체하고 남한 방송

등을 시청하면서 외부 정보 확보에 주력한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 유입과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이는 시장을 통해 생존의 자구책을 찾는 데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생산양식,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계층 구조, 성별 업무 분담 등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절도, 뇌물수수 등의 일탈 행위와 맞물려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통제하는 자와 통제받는 자 사이에 ‘권력과 돈’이라는 쌍방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점차 서로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으로 전개된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미국과 UN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체제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물론 2019년이 모두 끝나는 시점인 12월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다. 그 전 미국과의 실무접촉은 결국 북한에 대한 제재의 부분 해제가 핵심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 신앙의 자유를 찾아 (6)

마리아

취조를 마친 다음날부터 나는 노동 현장에 동원되었다. 전에 있던 벽돌 담을 허물고 시멘트와 자갈을 섞어서 콘크리트를 붓는 식으로 벽을 새로 치는 공사였다. 밑에서는 시멘트와 자갈을 섞고, 그 섞인 시멘트와 자갈을 몸에 지고 담벼락 위로 매고 올라오면, 위에서는 그것을 틀에 붓고 꼭꼭 눌러주는 것이 주된 일의 과정이었다. 나는 담 위에서 죄수들이 이고 온 내용물을 틀에 넣어 누르는 일이 맡겨졌다. 시멘트와 자갈을 들어 운반하거나 섞는 작업에 비해 그나마 쉬운 일이 맡겨졌다. 내가 바친 오십원을 받은 그 간부가 나를 그나마 좀 쉬운 작업으로 빼줬다는 짐작이 들었다. 황당했던 오십원 소동도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느껴졌다. 물론 그렇다고 일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일이 워낙 고되어 매일 입이 부르토고 다리가 저렸다.

일을 하는 내내 보위부 직원들이 순간순간 붙어 다니면서 감시를 했다. 이상한 대화를 하지는 않는지, 도망가지는 않는지... 심지어는 직원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감시했다. 어떤 간수가 나와 이야기를 하고 가면 곧이어 다른 간수가 와서 “그 선생이 불려서 무슨 이야기했는가?” 하며 내용을 서로 확인했고, 자기 담당 죄수들에게 “그 선생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봐달라”라

며 서로 감시하는 식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나라의 뿌리깊은 불신의 체제가 실감이 났다. 죄수들에게는 일을 하라고 고무신을 주었는데 발에 제대로 맞지 않는 엄청난 고무신을 주었다. 게다가 고무신의 뒤축은 일부러 가위나 칼로 싹둑 잘라 놓았다. 죄수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미리 손을 쓴 것이다. 뛰는 것은 고사하고 걷기도 힘들었다. 첫날부터 살이 다 까져서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다.



원체 일이 힘들었지만 이 순간 내 과거의 경험이 빛을 발했다. 어렸을 적 평양에서 돌격대 소속으로 건설 일을 했던 경험이 여기서 큰 도움이 되었다. 대부분의 건설 작업은 젊은 때 한번씩은 해봤던 것이다 보니 머리는 기억이 안나도 몸이 일의 방식과 요령을 기억하고 있었다. 일반 죄수들이 어려워하는 일에 대해서도

곧잘 실력 발휘를 하면서 동료 죄수들은 나를 보고 ‘여걸이 왔다’며 좋아해 주었다. 게다가 나는 그 와중에도 유머감각이 있어서 삭막한 노동 현장 가운데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곤 했다. 이러한 나를 좋게 봤는지 어느 날부터 누군가 나를 ‘물망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물망초’는 ‘다람이와 고슴도치’라는 제목의 북한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속 동물인데, 비록 악당이지만 그 중에서는 똑똑한 녀석이다. 아무래도 건설 일도 잘 알고 재치 있게 말도 잘 하다 보니 붙은 별명인 것 같다. 남조선 말을 쓰던 ‘괴물’이 ‘물망초’라는 별명으로 승진을 했으니 이것 또한 주님의 세밀한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북한 인기 애니메이션 ‘다람이의 고슴도치’ 중 악당 ‘물망초’〉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는 어느 날이었다. 구류장 소장이 공사 현장에 방문하였다. 노동에 동원되었던 죄수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간부들의 지시에 맞추어 일사불란하게 집합 대형을 만들었다. 험악하게 생긴 소장이 우리를 쪽 둘러보더니 갑자기 내 앞에 와서 섰다. 내 눈을 보고 “네가 물망초야?” 하며 짐짓 말을 시켰다. 간부들끼리 회의를 할 때 아마도 내 이야기가 나온 눈치였다.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하니 “씩씩하게 ‘힘들지 않습니다!’라고 해야지!” 하며 껄껄 웃었다. 구류장 소장이 전체 앞에서 이렇게 나에게 말을 걸어오니 인정받은 느낌에 어깨가 으쓱했다.

이곳 구류장에서는 약 한 달간 머물러 있었다. 이후 이관되어 인근 집결소로 이동하였다. 집결소에 모인 죄수들은 그곳에서 대기하며 자기 고향의 담당자가 와서 관할 지역으로 호송되기를 기다린다. 지방 호송 이후에는 추가 조사를 받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감옥이나 수용소로 가게 된다. 집결소는 온갖 지역에서 온 죄수들로 북적였지만 막상 지방 간부들은 집결소에 가기를 매우 싫어했다. 오가는 길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기가 충분하지 않아 기차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다가 중간중간에 예고 없이 멈추는 기차 여정은 3-4일씩 지연되었다. 기차 안에서는 씻지도 못할뿐더러 차에서 먹을 식량도 단단히 챙겨가야 했다. 간부들이라고 형편이 좋은 게 아니다 보니 집결소에 있는 죄수를 데리러 지방 관할에서 즉각 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심한 경우 반년이 넘도록 집결소로 호송하려 오질 않아 죄수들이 기약도 없이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었다.

집결소에 도착하니 이곳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았다. 미리 와 있던 죄수들은 신입들에게 텃세를 부렸다. 일도 많았다. 도착한 다음 날 새벽 4시부터 소장이 죄수들을 기상시키더니 발에 김을 매는데 동원했다. 손과 호미로 직접 콩밭에 김을 댔다. 새벽부터 일을 시키니 죄수들도 피곤해하고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몇 없



었다. 그렇지만 나는 ‘대충’이라는 것이 내 성미에 맞지 않아 열렬하게 호미질을 했다. 열심히 다니며 다른 사람들이 한 고랑을 땀 때 나는 세 고랑을 매었다.

일이 끝나자 소장은 죄수들을 집합시켰다. 전에 있던 반장이 이송되었으니 새로운 반장을 선출하겠다고 소장은 생뚱맞게 어제 갓 들어온 나를 지목했다. 신입이 반장을 한다고 하니 본래 있던 죄수들은 콧방귀를 끼었지만 나와 같이 들어온 동기 죄수들은 좋아해 주었다. 반장의 특권은 설거지였다.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왜 특권이냐고 하겠지만 설거지를 빨리 마치면 남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간부들을 통해 물건을 사기도 유용했다. 노동을 나갔을 때에도 간부들이 도시락을 먹고 나면 나를 불렀다. 먹다 남은 음식은 내 소관이었다.

집결소는 죄수들의 돈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애를 썼다. 그렇지만 강제로 뺏게 되면 원성이 크기에 죄수에게서 돈을 뺏긴 하지만 각 죄수별로 뺏긴 액수만큼 돈을 가진 것으로 인정해주었고, 죄수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었다. 물론 시중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고 적은 양으로 팔았다. 어느 감옥이나 비슷하겠지만 집결소 역시 춥고 열악하며 죄수들은 항상 배고팠기 때문에 아무리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돈을 썼다. 나도 이전 보위부에서 치약으로 벅벅 닦았던 돈이 함께 넘어왔다.

이곳에서도 예외 없이 영양실조가 만연했다. 매 끼니마다 통강냉이, 즉 옥수수 알갱이가 조금씩 배식되었다. 물론 구역질 나는 보위부 음식보다는 나았으므로 열심히 먹기는 했으나 여

전히 양도 적고 맛이라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질 나쁜 끼니였다. 굶어 죽기 직전까지 참았다가 간부들에게 돈을 주면서 밖에서 두부나 밥을 사달라고 부탁한 적이 몇 번 있었다. 나중에는 미숫가루처럼 생긴 평평이 가루를 많이 먹었다. 이 가루는 옥수수가루를 한번 숙성해서 열처리를 한 것인데 물에 풀어서도 먹지만 물을 조금 넣어서 뭉치면 금방 떡 같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유용한 가루였다. 이 떡을 먹으면 확실히 곡기가 있어서 금방 배가 꺼지진 않았다. 이동 작업을 할 때면 간부들이 밖에서 도시락을 사 먹었는데, 그럴 때도 잊지 않고 부탁하여 그 먹다 남은 도시락으로 영양실조를 면했다. 나와 같이 복송되었던 별이를 각별히 챙겼던 나는 그 아이와 함께 부엌에 숨어서 그 떡을 먹었다. 서글프고 초라한 가운데서 누리는 잠깐의 행복이었다.



〈북한식 인조고기와 평평이 떡〉

그러나 이곳 집결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권은 사치에 가까웠다. 집결소 간부들은 반반한 여자아이들을 밤마다 불러 댔다. 예쁜 10대, 20대 아이들은 죄수 신분으로 붙잡혀 왔기에 군소리를 못하고 끌려갔다. 그나마 일을 치르

고 나서 주는 도시락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달랠었다. 끌려가지 못한 죄수들은 그대로 영양실조에 시달렸다. 나중에는 먹기 위해 몸을 파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부터 죄수들 사이에서 장염이 돌고 설사가 유행했다. 녹슨 수도관을 고칠 수 없어 계속 쓰다 보니 그 물로 세수도 하고 빨래도 했다. 먹는 물도 그 물을 그대로 끓여서 주는 것 같았다. 그 물이 화근이었다. 나도 예외가 아니었다. 너무 배가 아파 소장님께 돈을 주고 약을 사서 먹었다. 그 약을 받고 보니 우리 감방에 약을 못쓰고 배만 부여잡는 다른 죄수들에게 눈에 들어왔다. 딱한 마음에 약을 나누어 주었는데 다들 놀라는 눈치였다. 분위기를 보니 예전 반장은 돈이나 옷 등을 받고 약을 팔았었는데 나는 요구하는 것 없이 그저 나누어 주었던 게 감동이 되었나보다. 그 이후부터는 나보다 오래 머물렀던 죄수들도 텃세부리지 않고 나를 잘 따르기 시작했다.



〈북한의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 ‘요덕스토리’의 한 장면〉

내가 현재 있는 곳은 아직 집결소이기에 관건은 빨리 이곳을 빠져나와 원 관할 구류장으로 이동하는 것이었고, 나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소장님께 중국 돈 백원을 드리면서 내 고향과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오는 간부가 있다면 같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부탁한지 12일 만에 고향 마을을 경유하는 인근 지역 간부가 왔다. 나를 데리고 갈 간부에게도 이백원을 주고 그곳을 나왔다. 나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던 별이가 떠나는 나를 안고 엉엉 울었다. 나도 너무 마음이 아파 집결소 간부에게 이 아이만은 잘 돌보아달라고 간청하면서 돈을 쥐여주었다. 이후에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그나마 쉬운 업무로 배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기차로 이동을 했다. 한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쇠사슬을 항상 차고 있었다. 화장실도 쇠사슬을 차고 갔다.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도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인솔해가는 안전원도 신경이 날카롭고 감시 역시 심해졌다. 가다가 중간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미리 챙겨온 평평이가 가루로 떡을 지어먹었지만 도착할 때가 되니 그마저도 다 떨어지고 없었다.

한 4일 정도 갔을까? 몸 상태가 엉망이 되었다. 집결소에서부터 앓았던 장염이 갈수록 심해져서 고열에 끄떡 없고 화장실에서도 피를 보았다. 보다 못한 군인이 자기가 먹다 남은 오이를 톱 잘라 주었다. 매일 옥수수 알갱이나 평평이가 가루 떡을 먹다가 채소를 먹으니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약을 먹는 양 오이를 씹고 있는데 군인은 짓궂게도 오이를 받아먹은 감

상을 발표하라고 시켰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국의 오이가 이국의 오이보다 맛있습니다”라며 입바른 혁명적인 소리를 했다.


그렇게 우리는 역까지 도착했고, 나는 아픈 몸을 이끌고 역전 대합실에 나동그라졌다. 여기부터는 기차 대신 차량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어머니 계신 친정집이 가까이 있었다. 안전원에게 식량도 떨어졌으니 친정집에 한번만 들러서 도시락을 싸서 가자고 설득했다. 처음에는 안된다고 했지만 가지고 있던 돈을 탈탈 털어 건네주고 허락을 받았다. 가만히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데 낮익은 집들과 거리들이 보였다. 우리는 어머니가 사시는 친정집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순간 어머니와 친정 오빠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려 눈물이 앞을 가렸다.

마침내 친정집에 도착했다. 차에 내려 집으로 향하는데 함께 이송되던 언니가 갑자기 “우리 도망가자”라고 말했다. 순간 가슴이 벌렁거렸다. 살아서 탈출할 수 있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몸도 좋지 않았거니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총알을 이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알 수 없이 북받치는 마음을 애써 붙잡으며 터덜터덜 낮익은 옛집을 향했다. 한 걸음이 십리 같았다. 집에는 친정어머니와 친정 오빠가 있었다. 몇 년 만의 눈물겨운 모녀 상봉은 서로 악을 쓰며 울게 만들었다. 한참을 울다가 어머니는 나를 안쓰럽게 보시면서 “나라를 반역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친척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는가?” 하고 이야기하셨다. 친척이라 함은 당에 있는 친척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

다.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북받치는 설움에 괜스레 화가 났다. 그 친척들이야말로 힘들 때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으니 내가 돈 벌기 위해 강을 건넌 것 아닌가? 나도 질세라 “엄마, 그 친척들이 우리 어려울 때 쌀 1킬로라도 준 적 있는가?” 하며 대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놓고 울거나 말싸움을 할 때가 못되었다. 어머니는 우리 사정을 들으시고 집에 쌀을 탈탈 털어 밥을 짓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안전원에게 줄 도시락을 만드는 사이에 우리 오빠는 잼싸게 나가서 십수 리 너머의 우리 집으로 달려가 꿈에도 그리던 남편과 아들을 내 앞에 데리고 왔다. 세 살 반 되어서 헤어졌던 아기가 아홉 살 소년이 되어 내 앞에 섰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안고 엉엉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남편은 눈물을 삼키면서 아들을 내 쪽으로 끌었다. “네가 아플 때마다 찾던 엄마가 이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남편 옆에서 아들은 낮선지 그저 눈을 끄뻑거리며 서있기만 했다. 길에서 지나쳐도 모를 만큼 커버린 아이를 보며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쇠고랑을 차고 만났던 우리의 상봉은 서글프기만 했다.

반가움도 잠시, 우리는 서둘러 이동해야만 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훗날을 기약하지도 못한 채, 나는 가족과 헤어져 지역 구류장으로 이송되었다. (계속) 

## + 北 연이은 발사체 발사 실시



북한은 8월 16일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8월 16일 “북한이 이날 오전 8시1분과 16분쯤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이 고도는 약 30km, 마하 6.1의 이상의 속도로 약 230km가량을 날아갔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10일 이후 첫 번째이다. 지난 10일에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이 포착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7월 31일과 8월 2일에도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번 발사체도 정점 고도와 비행거리만

을 고려하면, 북한이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발사했다고 주장한 신형 대구경 조정 방사포와 유사하다. 이들 발사체의 고도는 각각 30km와 20km, 비행거리는 250km와 220km였다.

잇달은 발사체 사격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인 16일 오전 9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이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배경과 관련해, 한미 훈련에 대한 반발로 규정하고 북한의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 탈북 모자 집에서 숨진 채 발견..."두 달 전 사망 추정"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관악구의 임대아파트. (사진=한겨레)〉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자인 40대 여성과 여섯살짜리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8월 13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7월 31일 오후 2시 30 분께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자 한 모(42) 씨와 아들 김모(6)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모자의 사인이 아사로 추정되면서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발견 당시 집안에 음식물은 냉장고에 있던 고춧가루뿐이었다. 공과금 미납으로 단수가 된 상태여서 물조차 없었다. 이들 모자의 생활고를 증명하듯 통장 잔고는 0원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9년 중국과 태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고 한다. 이후 중국 교포 남성을 만나 결혼했고 아들 김군도 낳았다. 한씨의 남편은 경상남도 통영의 조선소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다고 한다. 조선업 경기 불황이 심해지자 세 가족이 중국에 이민 갔다고 전

해진다.

한씨가 우리나라로 돌아온 건 작년 말이었다. 한씨 곁에는 아들 김군만 남아있었다고 한다.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로 마땅한 일거리가 없었던 한씨는 이후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직장마저 아들의 장애로 제대로 다닐 수 없었다. 이에 한씨의 소득인정액(소득+소득의 재산환산액)은 0원이었지만, 기초수급자로 보호조차 받지 못했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해 받았지만 이마저도 올해 아들이 만 6세가 넘으면서 연령 제한으로 중단됐다.

한 씨가 극빈 상태인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한 씨가 지난해 두 차례 주민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주민센터가 외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 + 중, 대북 물밀지원 본격화…북한 관광도 적극 장려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지난 6월 방북을 계기로 식량 보내기와 관광객 송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물밀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8월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중국의 후원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과는 더 거리를 두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관련 협의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한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면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진단했다.

아사히가 한국 정부 관계자와 북·중 무역상 등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시 주석의 6월 방북 후에 대북 식량 지원을 결정했다. 중국은 이 결정에 따라 약 80만t의 쌀을 선박 편

등으로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아사히는 대북 식량 지원은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 주석 방북 이후 옥수수를 포함한 중국의 전체 대북 식량지원 규모를 100만t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북한의 1천만명 이상이 굶주림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연구기관도 북한에서 올해 150만~180만t의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WFP를 통해 5만t가량의 쌀을 지원하려 했지만, 북한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거부했고,



〈올해 4월 개통된 지안-만포간 대교〉

한미합동군사연습 재개를 문제 삼아 한국과의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아사히는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중국의 지원으로 식량과 경제 사정에서 한숨 돌렸다고 판단하고 한층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아사히는 별도의 기사를 통해 중국의 대북 지원이 유엔 제재에 걸리지 않는 관광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중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근거로 중국 정부가 시 주석 방북 후에 북한으로 가는 관광객 수를 500만명으로 늘리도록 여행사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영향으로 북한 북서부 만포시와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를 잇는 357m 길이의 ‘지안압록강대교’는 매일 저녁이 되면 북한 당일치기 여행객을 싣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관광버스가 줄을 잇고 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반나절짜리 투어 상품도 나와 있는데, 요금이 8만 5천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어서 연일 만석이고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없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또 지린성 투먼(圖們)시와 룡징(龍井)시에서 출발하는 당일치기 북한 투어 상품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3배 정도로 많은 손님이 몰리고 있다.

앞서 김춘희 북한 국가관광총국 관광홍보국장은 7월 27일 보도된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북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90%가 중국인

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사히는 “북한은 유엔 제재로 광물자원 수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선행 투자비가 적게 드는 관광업을 주요 외화 획득원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며 북한이 중국인 관광객을 주로 취급하는 여행사를 여럿 신설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전했다.

## + 북 함경북도 지역 장마로 인한 큰물 피해 심각



〈8월 장맛비로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회령 지역 하천의 피해 이전(왼쪽)과 피해 이후 모습. (휴대전화 촬영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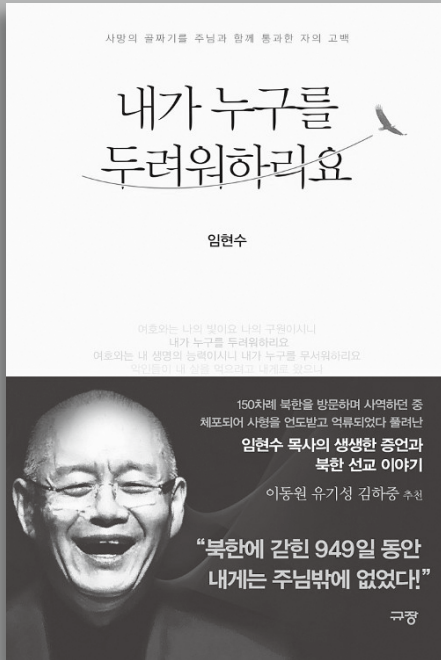
이번 여름 장맛비로 인한 북한의 농작물과 인명피해가 심각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함경북도 이북 지역의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보도에 따르면 함경북도 일대에서 집중 호우가 쏟아져 농작물과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회령 이북 지역에 있는 논과 밭 대부분이 장맛비로 인해 소실되거나 침수되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소식통은 “큰물 피해가 제일 심한 지역은 회령, 온성, 새별, 나선 지구로 북쪽 지방에서는 경작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들”이라면서 “북쪽에서 제일 큰 벌인 두만강 하구

벌이 이 지역에 속하는데 이번 장마로 물이 불어 강둑이 범람해 큰물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큰 비로 인해 물이 둑을 넘어 들어와 농작물을 쓸어가다 보니 경작지들은 농작물 한 포기 남지 않은 허허 벌판이 되어 버렸다”면서 “이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참담하다”고 설명했다.

함경북도의 또다른 소식통은 같은 날 “이번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크지만 두만강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민가들의 피해도 적지 않다”면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몇몇 지역들에서는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고 해당 방송은 전했다. 〈참고: RFA, 8.20〉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저자: 임현수

출판사: 규장

발행일: 2019년 7월 8일

가격: 15,000원

고난의 행군 이후로 북한의 열악한 실태가 알려지면서 이념을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여러 국제 단체와 기관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사역을 진행했다. 그 중 캐나다 큰빛교회 담임이었던 임현수 목사는 단연 돋보이는 사역자였다. 임 목사는 1997년부터 북한을 150여 차례 이상 드나들며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단 없이 대북사역에 열정적으로 사역했다. 그 기간 동안 지원 금액도 약 550억원 상당에 달했다. 그렇기에 갑작스러운 임현수 목사 억류는 기독교계는 물론 대북 지원 사역을 진행


했던 모든 이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 임현수 목사는 북한 법정에서 최고 존엄 모독죄를 비롯하여 탈북자나 해외 북한인들을 돕고 북음복 전한 것을 빌미로 각각 ‘반동 분자를 도운 죄’와 ‘북한 대사에게 북음을 전한 죄’로 고발되었다. 최초 언도는 사형이었으나 외국인 신분인 관계로 ‘무기 노동 교화형’ 판결이 내려졌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임현수 목사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스럽게 3년이 조금 못되는 기간 동안의 억류 끝에 풀려날 수 있었다.

임현수 목사의 억류는 워낙 충격적인 일이기도 했고, 파장이 큰 일이었기 때문에 석방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북한의 억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임 목사님의 억류 생활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에 소개할 책,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는 임 목사님이 억류 전 대북사역에서부터 억류 당시 생활과 석방 후의 행보를 서술한 책이다.

이 책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무엇보다 고난과 외로움의 억류 생활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동안 열심히 사역에 매진하며 달려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영적인 은혜를 놓치고 살아왔음을 저자는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억울하게 자유를 빼앗긴 억류 생활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고난을 감사로 이겨냈음을 담담히 고백하고 있다. 억류 과정에서, 또 억류 기간동안 더욱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북한 정권의 반기독교적이고 우상숭배적인 행태에 대한 고발도 담겨있다. 백성들의 어려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령의 우상화에만 열을 올리며 감시의 감시가 이어지는 극도의 불신사회를 만든 북한 정권의 죄악에 대해 본인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생생한 증언과 함께 강도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책에 담았다.

오랜 기간 열심히 사역했지만 오히려 억울한 고초를 겪은 만큼 다시는 그 땅을 바라보기

도 싫을 법도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책 속에서 그 동안의 대북 지원 사역들을 갈무리한 저자는 앞으로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의 북한 지원은 어렵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특별히 기도와 연합 가운데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북한의 변화와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일에 헌신할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경험을 한 두 차례 여행이나 평양에서의 생활 등을 바탕으로 쓴 책들이 시중에 상당히 있다. 그렇지만 자신이 보고 겪은 일만 쓸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 책들이 북한을 충분히 깊이 보여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정 지역과 분야에 의미 있는 책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편적인 자기 감상을 곁핍기 식으로 보여주는 책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임현수 목사의 책은 오랜 기간의 대북 사역의 경험과 3년에 가까운 억류라는 극한의 상황을 경험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북한의 겉과 속에 대해 상당한 통찰력을 가지고 관찰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앙적으로도 도전적이고 고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다. 북한과 통일에 관심있는 분들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 이 책이 도전이 되리라 생각하며 일독을 권한다. 



## 북한 기도 제목

1. 북한의 악화되는 경제속에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북 제재로 인한 어려움은 부자나 고위층이 아닌 일반 서민이나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추수를 앞두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수준의 식량난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올해 작황 및 식량 생산량도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권의 핵개발로 인한 제재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갖춰지도록 기도합니다. 긴급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영육간의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역의 문이 열리길 기도합니다.
2.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각한 박해 가운데 경제난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성도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남은자로서 이 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성도들은 고난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때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본 선교회에서는 절실한 영육간의 필요를 지원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교회의 지원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북한의 인권 탄압 종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종교적인 통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감시와 통제, 특히 심각한 기독교 박해를 자행하는 북한이 이제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박해로 순교한 이들, 또 산간오지 및 탄광 등에 추방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수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성도들 및 그 후손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현재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그리고 그 외 북에 붙잡혀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북한의 자국민에 대한 인권 탄압이 중단되고,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고한 이들이 석방되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을 둘러싼 외교의 방향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는 북한의 핵문제를 중심으로 북한과 미국간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계속해서 발사체 실험을 실시하는 등 한반도 정세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대립이 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도록, 북한 핵이 확실한 폐기로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가 외교 무대에서도 다루어지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기도합니다.
5.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전 탈북 모자가 거주하던 임대아파트에서 굶주림 가운데 숨을 거둔 일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적절한 지원과 복지가 지원되지 못하는데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탈북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통일의 마중물이라 외쳤지만 무관심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바른 복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통일과 북한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 탈북민을 비롯한 북한의 영혼들을 섬기고 통일을 앞장서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중 관계 개선 국면 속에서 중국 내에 탈북자 색출 및 체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자나 관련 활동가들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파괴하려는 북한 당국의 활동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북한 당국이 훈련된 요원이 아닌 중국을 방문하는 일반 친척방문자에게도 성경공부를 시키는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을 비롯해 중국 내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계속된 어려움을 창의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합니다.

7. 대북 라디오 선교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밤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철책 너머 북으로 전파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및 자체 후원 라디오 사역 등을 통해 라디오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북한 성도와 주민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한 음질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단체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19년 9월 1일



**2019**

#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취지: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전 세계 후원자들이 함께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

**일 시: 2019년 10월 9-10일(1박 2일)**

**장 소: 경기도 연천군**

**종 목:** 산악 마라톤 10km, 21km, 42km  
산악 하이킹 10km, 21km, 42km, 68km  
산악 자전거 21km, 42km, 63km, 120km

**참가비: +20만원(체류비용 + 선교헌금)**

**참가인원: 해외 100명(확정) + 국내 50명 모집 중**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 20명(영어 가능자 우대), 행사 기간 체류 비용 지원**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 모집인원

현장 선교사(여성 사역부분 : ○명 / 일반 사역부분 : ○명)

## 주요업무

- 현장의 필요에 따라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 배정(개별 협의)
- 여성 부분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 사역 참여

## 지원자격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은 분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여성사역부분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독신자 우대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공산권 선교에 헌신된 자
- 연령 : 45세 미만(예외 가능)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 사본(면접 시 지참)

##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http://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 의 처 :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